

반려견에게 생고기, 우유를 주어도 될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로부터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을 얻는다. 또 어린시절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 면역력도 높아진다.

반려동물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물은 역시 강아지(개)이다. 반려견들은 육식 뿐 아니라 사료, 간식 등을 먹는다. 덕분에 조상으로 알려진 늑대보다 수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반려견이 생고기나 동물의 뼈를 잘못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탈이 날 수도 있다.

지난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뼈 제품들이 개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반려견에게 뼈를 잘못 줬다가는 치아가 골절될 가능성이 있고 기타 질병들도 자주 발생해 위험하다.

대형견의 경우 육식을 하는 늑대의 먹이 습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개가 닭뼈를 먹고 위가 천공돼 생명을 잃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반려동물로 크고 있는 개들은 부드러운 음식 등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구강구조, 소화기 구조가 변화된 만큼 특히 소형견의 경우에는 동물의 뼈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며 “생식은 살모넬라 등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장기간 생식을 할 경우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고 말한다.

뼈가 식도를 막을 경우 기도압박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뼈 성분 중 일부는 소화가 되지 않고 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변비를 유발하거나 소화되지 않은 뼈조각이 변에 섞여 나오면서 통증과 출혈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반려견에게 치석제거를 위해 뼈를 급여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뼈 급여가 치아관리 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치아골절이나, 부서진 뼈가 소화기관의 천공, 폐색 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뼈를 꼭 급여하겠다는 개의 특성에 따라 맞춰서 주고 보호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의 크기, 성격 등에 따라 뼈를 갖고 놀거나 씹는 방법이 다르니 수의사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반려견의 치석을 제거하려면 양치질을 시키거나 전문성 있는 회사에서 공급하는 덴탈케어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어린 강아지에게 우유를 먹이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강아지를 구입한 뒤 맨 먼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강아지의 건강이다. 생후 3개월 이내에 식사, 질병, 보온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보살핌으로 건강의 기초를 닦아줘야 한다.

실내 온도는 20~23도를 유지해 줘야 하며 적당한 식사,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방지 등이 적음 기간 동안의 관리 요령이다. 식사는 소량씩 하루에 네다섯 번 주고 수분 섭취를 위해 신선한 물을 물그릇에 미리 준비해 뒀 탈수증을 예방해 준다.

강아지를 집에 데려오면 식구들이 반갑다고 마구 만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질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어린 강아지는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유를 먹이는 것은 금물이며, 특히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생선 뼈, 오징어, 쥐포 등도 설사의 원인이 되므로 삼아야 한다.

강아지에겐 설사가 가장 치명적인 병이다. 설사로 인하여 심한 탈수 현상을 보여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수 방지를 위해 음식물 보급을 중단하고 보리차에 설탕을 적당히 넣어 1, 2시간 간격으로 물만 먹이다가 차도가 없으면 곧바로 수의사를 찾아야 한다.

목욕은 지나친 냄새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곤 집에 데려온 뒤 1주 이후에 약 1주 간격으로 시켜준다.

강아지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강아지는 인간의 반려 동물로 자그마치 1만5천년을 함께 살아왔다. 미국 인터넷 과학전문 뉴스 사이트인 라이브 사이언스가 잘 알려지지 않은 강아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했다.

1. 냄새로 사람의 병을 알아낸다

주인이 암이나, 당뇨병, 간질 등을 앓고 있다면 강아지가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된다. 많은 연구에서 강아지들에 훈련을 시킬 경우 폐암과 유방암, 피부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원들은 강아지의 이런 능력이 암세포에서 나오는 독특한 냄새를 찾아내는 뛰어난 후각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강아지들은 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봉사 동물로 활용된다. 특별히 훈련 받은 강아지는 환자의 혈당 변화에 따른 냄새를 감지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환자에게 알려준다.

강아지에 대해 여러 연구보고 가운데 가장 신기한 것은 간질 환자의 발작이 시작되기 45분 전에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강아지의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어떤 냄새나 미묘한 행동 변화를 인지하는 능력에서 기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온순한 강아지가 더 오래 산다

학술잡지인 <어메리칸 네츄럴리스트> 2010년 6월호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56가지 견종을 상대로 성격, 성장속도, 에너지의 사용, 수명 등을 비교한 결과 온순하고, 복종하는 강아지가 오래 사는 반면 용감하고, 공격적인 견종은 일찍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이 사나운 개는 상대적으로 빨리 자라고, 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

3. 표정만 불쌍해 보일 뿐이다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정해진 장소에 변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아지에게 야단을 치면 눈치를 살피면서 불쌍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이는 잘못을 인정해서 짓는 표정이 아니라 단순히 질책을 하는데 대한 반응일 뿐이다.

강아지들이 금지한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주인이 혼을 내면 강아지들은 실제로 그 음식을 먹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잘못했다는 듯 한 표정을 짓는다. 실제로, 간식을 훔쳐 먹었다고 오해를 받은 강아지가 야단을 맞을 경우 훔쳐 먹은 강아지 보다 오히려 더 죄를 지은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다고 한다. 결국, 강아지의 슬퍼 보이는 눈빛은 마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전문

Pine Tree Construction

부엌 / 화장실 리모델링 전문

전기/플러머/타일 25년 이상 풍부한 경험!!!

최고의 기술력 & 정직한 회사

주정부 면허회사
CA Lic #:1051205

714.345.8768

36 Discovery #100
Irvine, CA 92820